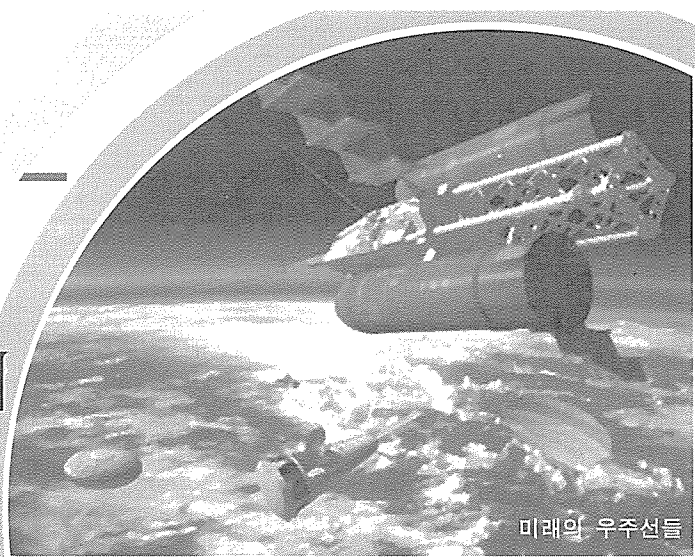


우주여행



미래의 우주선들

“**절** 대로 안돼!” 소리가 그렇게 소리쳤지만, 자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우주 여행이 뭐 대단하다고 저렇게 소란을 피우는지 그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다.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겨우 우주 정거장까지 가는 것 뿐인데 말이다.

“자기야, 우주 여행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아? 작년에도 유성 때문에 세 대나 추락했대.”

작전을 바꿨는지, 소리는 가냘픈 목소리로 자기를 위해서라도 가지 말라고 애원했다.

“이봐, 그건 해왕성까지 가는 진짜 우주 여행이었잖아. 이걸 겨우 우주정거장까지 가는 거라구. 지구도 못 벗어나는 거야. 위험할 거 전혀 없대니까!”

자크가 그렇게 짜증을 내자, 소라는 토라진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는듯 하더니 말했다.

“좋아. 그럼 뭐 타고 갈 건데?”

그 물음에 자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솔직히 말해 봐. 엘리베이터? 아니면 우주왕복선?”

그는 진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기 말이야. 사실은 옛날 방식으로 가기로 했어. 그게 이번 기획취재거

든.”
그러자 다시 고품이 들려왔다.
“뛰앗! 안 돼!”
자크는 재빨리 화상 통신을 꺼버렸다.

누 군가는 우주 엘리베이터가 상상력의 극대화라고 칭찬한 바 있다. 하지만 자크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그는 그것을 상상력의 빈곤 탓으로 돌렸다. 모름지기 우주란 유선형 우주선을 타고 날아올라야 제 맛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말이다. 더구나 바람이라도 세계 부는 날에는 멀미까지 했다. 저번에도 옆자리의 승객이 그의 옷에 구토를 하는 바람에 기분을 완전히 망치지 않았던가.

그는 창 밖으로 보이는 기둥을 바라보았다. 기둥 끝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도 않았다. 기둥은 십여년 전까지만 해도 겨우 지상 수백킬로미터에 떠 있는 인공위성까지만 닿아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지상 3만6천킬로미터의 정지궤도까지 솟아 있었다. 덕분에 한가했던 우주정거장은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어졌다. 더구나 요즘은 아무 곳이나 우주 엘리베이터 기둥을 세우고 있는 형편이었다.

자크가 탄 차는 기둥 앞에 멈춰 섰

다. 안으로 들어가니 사방에 온통 우주 여행 그림이 장식되어 있는 넓은 홀이 나타났다. 그는 백층까지 올라가는 직통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백층 카페에 들어가자, 누군가 손을 흔들었다. 레미였다.

“어서 와.”

둘은 악수를 나누었다.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바닥이 크게 흔들렸다.

“이런, 오늘 바람이 심하다고 하더니, 정말인데.”

“왜 이런 데서 만나지는 거야?”

자크가 투덜댔다. 레미는 빙긋 웃었다.

“좋잖아. 난 이 흔들리는 진동이 마음에 들어. 요즘은 이런 이슬이슬한 기분을 느끼기가 힘들어. 아마 여기 오는 사람들 중에 태반은 그것 때문에 올 걸?”

“다 정신병 환자야.”

“맞는지도 모르지.”

둘은 기획취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레미는 이번 취재를 위해 특별히 러시아 우주박물관에서 로켓 사용을 허가했다고 말해주었다.

“정말 구식이야. 문제는 발사대인데, 지금 남아 있는 건 하나 뿐이래. 수십 년 전에 디즈니에서 구입해서 지금은 디즈니랜드에 있다는군. 내일 찾아가기로 약속해두었어.”

“연료 같은 건?”

“물론 옛날 연료를 쓸 순 없지. 오존층이 파괴될 거라고 야단법석일테니까. 또 연료통 회수도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자기부양식을 쓰기로 했어. 물론 겉으로는 연기를 내뿜어야지.”

“그럼 문제는 거의 해결된 셈이네. 그런데 우주선이 올라갈 때 받는 압력은 어떻게 하지?”

“너는 그냥 인상만 쓰면 돼. 온몸이 눌린다는 식으로 말이야. 압력 저감 장치를 이미 해놓았으니까 걱정할 것 없어.”

“나 야.”

“흥! 아까는 그냥 끊어버리더니, 왜 전화했어?”

“아냐. 그냥 끊었어. 오늘 통신 위성 하나가 고장났대.”

통신 위성이야 날마다 고장나는 것이니까, 거짓말은 아니었다.

“아무튼, 갈거야 말거야?”

“직업인데 어쩔 수 없잖아. 전혀 위험하지 않대. 사실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가끔 인상을 쓰면서 실황 중계를 하면 되는 거고.”

소라의 표정이 약간 풀어졌다.

“그래도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걱정도 많네. 알았어. 미리 보험을 들어두지. 그럼 됐지?”

그러자 소라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떠올랐다. 결국 보험 들라는 얘기였군. 그렇게 생각하니, 자크는 약간 씩씩한 기분이 들었다.

마 침내 발사시간이 다가왔다. 자크는 우주선 안에 들어가 자세

를 잡았다. 우주선 안은 생각보다 좁았다. 그는 예행 연습을 해보았다.

“지금 저는 빠른 속도로 우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한 압력이 제 몸에 가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몸이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옛날 우주비행사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보고 나니, 벌써 우주 여행이 끝난 듯했다. 하지만 우주선은 여전히 발사대에 머물러 있었다. 자크의 눈 앞에 있는 화면에는 발사대 주변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다.

“자크, 몸은 어때?”

레미가 관제실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기분 좋아. 너도 한 번 타보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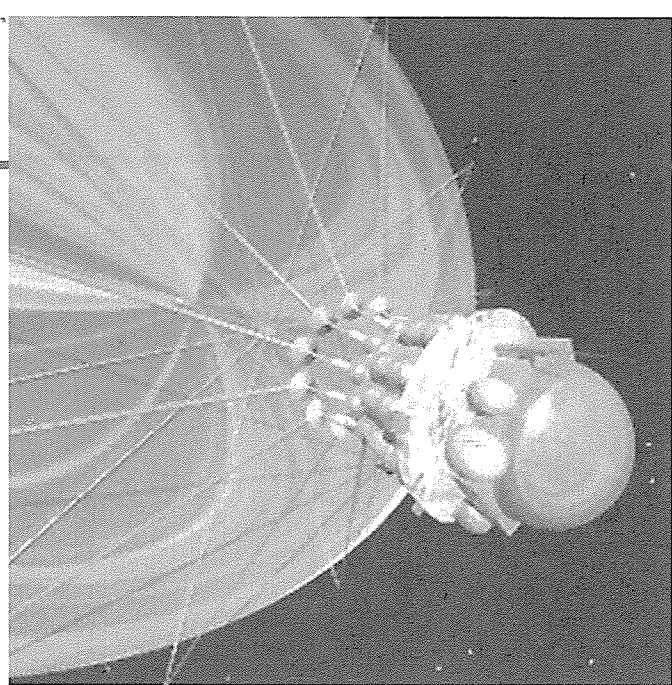
“좋지. 다음 기회를 노려보겠어. 그런데 보험은 들어봤어?”

“갑자기 보험은 왜? 소라가 난리치는 바람에 들어놓긴 했지. 왜? 위험하진 않다며?”

“잘 했어. 물론 위험하진 않지. 그런데 상황을 좀 바꾸기로 했어.”

“뭐라고?”

“이건 중계할 말을 좀 바꾼 건데. 일단 들어봐. ‘이런!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갑자기 우주선이 떨어웁니다. 뭔가 찢겨나가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럴 수가! 추락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야. 어때?”



빛을 이용하는 우주선이 화물을 운송하는 모습

자크는 갑자기 등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뭐야? 우주선을 추락시킨다고?”

“별 거 아니야. 망가뜨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적당히 추락시키다가 우주 왕복선으로 회수하는 거지. 어때? 이 시나리오가 더 극적이지?”

“절대로 안돼!”

자크의 절규를 못 들은 척, 우주선은 그대로 발사되었다. 그리고 올라가던 도중에 두 동강이 나더니, 그대로 추락해버렸다.

자크는 눈을 떴다. 우주선 발사 이후의 기억은 이미 주입되어 있었다. 눈 앞에는 소라와 레미가 서 있었다. 자크는 그들을 보며 투덜거렸다.

“정말 로봇이라고 이렇게 푸대접해도 되는 거야?”

“그럴 리가. 정말 멋진 중계였어. 좋잖아. 이렇게 새로운 몸도 갖고.”

“그래서 내가 말렸잖아?”

소라가 코웃음을 쳤다. ㉞

이 한 음 <작가>